

제과점 기계 설비, 절반 가격으로



중고 기계로 시설비 부담 극복한다

경제 위기가 고조되던 지난 2월을 전후해 제과 기계시장에도 중고품 선호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중고 기계를 활용해 시설 투자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IMF형 알뜰 소비 경향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중고 기계 업체에 걸려오는 구입문의 전화는 하루 평균 10여건 이상이 급증했다.

일명 '브로커' 라고 불리는 개인 중개업자까지 포함하면 중고 기계 판매상은 대략 20여 업체에 이른다. 이들중 상당수는 올 2월 이후 중고품 판매를 병행하기 시작한 중고시장의 '새 얼굴' 들로, 최근의 중고 선호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업계 일반의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다.

중고 판매상들의 취급 품목은 오븐기, 발효기, 믹서기, 쇼케이스는 물론 각종 기계류와 소도구까지 제과점 기계 장비를 총망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들어 시설 자급에 부담을 느낀 업주들이 새 기계 대신 중고 기계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중고 기계 시세는 공장 출고가의 50% 수준

중고 기계 시장에도 나름대로 '잘 나가는' 품목이 있다.

예를 들어 14인치 믹서기 같은 기계는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경우다. 비교적 소용량인 14인치 믹서기는 분식점이나 중국 음식점 등에서도 구입 요청이 쇄도해 중고 기계 업체들이 기계를 구해오기도 전에 구매자가 대기하고 있는 형편이다. 제과점에서 기본적으로 구비하는 컨벡션 오븐이나 파이롤러 등도 중고 시장에서 단연 인기 품목으로 꼽힌다.

하지만 중고 기계가 주로 폐업 점포를 통해서나 매입할 수

있는 '특수한 상품' 이기 때문에 중고상들도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특정 품목에 대해 수요가 많을 때도 충분한 공급량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중고 기계 시장의 한가지 단점이다. 이에 비해 쇼케이스처럼 유행주기가 짧은 경우에는 시세가 훨씬 낮게 형성된다.

한편 중고 시장에서선 외국산 기계가 국산보다 훨씬 '귀한 대접' 을 받는다. 외국산 기계는 잔고장이 적고 성능도 우수하다는 인식 때문인데 시세도 공장에서 갓 출고된 국산 신품과 엇비슷한 수준으로 거래된다. 전문가들 역시 외국산 기계의 수명이 국산 기계보다 약 2배 정도 길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외국산 기계 또한 품목에 상관없이 수요가 많고 가격 부담도 만만치 않다.

중고 기계의 시세는 사용 기간, 노후 상태, 품목에 따라 결정되는데 대부분이 현금 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중고 기계의 가격은 공장 출고시의 절반 수준이 일반적인 시세지만, 여기에 업체에 따라 판매전략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매매 상담시 정해지는 '협상가' 가 곧 판매가격이 된다.

예를 들어 한 업체는 6개월 사용한 16인치 믹서기를 공장 출고가의 절반 수준인 270만원에 판매하고 있지만 이 가격은 업체에 따라 많게는 20~30만원까지 차이가 날 수도 있다.

또한 중고 기계를 구입할 때는 판매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게 절대 유리하다. 개인 중개업자를 통해 기계를 주문하면 이들이 다른 업체에 물건을 수배하는 일이 많은데, 이때 일정액의 소개료가 포함되어 그만큼 가격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전시장에 갖춘 전문 업체를 직접 방문해 기계를 구입하는 편이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좋은 중고 기계 고르는 방법

아무래도 중고 기계는 신제품보다 10~20% 정도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구입시 현장에서 미리 기계 성능을 점검해 보는 편이 좋다.

전기 오븐의 경우에는 주로 전자 부품의 고장이 많기 때문에 온도조절기의 작동 상태를 확실히 체크해야 한다. 기계 판매장에는 고장 수리를 위해 전기 오븐에 사용되는 380V의 전기 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현장에서 기계를 작동시켜 타 이머의 불량 여부를 점검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기능이 간단한 기계일수록 고장날 확률이 적기 때문에 무조건 다기능 제품을 고집하는 것보다 자기 점포에서 꼭 필요한 성능을 우선으로 선택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믹서기는 기계를 작동했을 때 소음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기기가 좋은 제품이다. 일부 생산업체에서 기계를 출고할 때 기어가 맞물리는 부분에 사포가루를 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당장 소음은 적어지더라도 기계 수명이 1/10 이하로 크게 단축되어 구입 후 낭패를 볼 우려가 있다.

또 생산업체의 작업 편의를 위해 나사를 쓰지 않고 아예 용접으로 혹은 고정시킨 경우도 적지 많은데 이렇게 되면 노후된 혹은 교환할 수 없어 부득이 믹서기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구입시 A/S 가능한지 확인해야

중고 기계는 2~3년 이내 출고된 제품이라야 부품 조달이 용이하고 잔고장이 적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공장에서 출고될 당시의 도색을 유지하고 있는 기계가 선호되는데 노후한 기계일수록 중고상에서 새로 도색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도색이 끝난 기계는 주요 부분의 마모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판매상에 사용연한을 확인받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국내 기계생산 업체는 제각기 작업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메이커에 따라 공장 출고 때부터 성능의 우열이 나타난다. 이때 한가지 품목을 오래 생산한 전문 업체의 제품을 구입하면 추후에도 필요한 부품을 조달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중고 기계를 구입할 때 A/S 보장 여부도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중고 기계는 평균 6개월~12개월을 A/S 기간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자체 A/S 인력이 없는 일부 개인 중개업자의 경우 이를 다른 업체에 전가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한다.

그러므로 기계 구입시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업체의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이**

(글/이종원)

〈주요 중고 기계 판매 업체〉

업체	주소	전화번호	비고
영진제과기계	광진구 중곡1동 616-5	(02)462-0717	100여 평의 전시장과 A/S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과점 운영에 필요한 모든 기계 일체를 한곳에서 일괄 구입할 수 있다. 기계 수리, 판매는 물론 원목 진열대 등을 생산하는 중고 전문 업체다.
우주산업	동대문구 신설동 92-115	(02)924-5501	철저한 사후 관리를 위해 5명의 A/S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제품 생산을 겸하고 있어 풍부한 기술 노하우를 자랑한다. 중부권 이북을 주요 영업 지역으로 한다.
진원제과기계	동대문구 신설동 92-95	(02)469-2644	94년 설립된 중고 전문 업체로 100여평의 전시장을 갖추고 있으며 경기도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발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A/S 등 사후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다.
동양기계	구로구 고척1동 152-8	(02)683-0100	100여년 이상 중고 기계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철저한 수리 후 판매를 장점으로 내세운다. 수도권 서남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영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확실한 A/S를 보장하고 있다.
한솔제과기계상사	마포구 상암동 128	(02)309-0103	중고 기계 구입시 8개월 동안 확실한 A/S를 보장해 주며 1988년부터 중고 기계를 취급하기 시작해 축적된 기술 노하우를 자랑한다.
한국중고제과기계종합센터	강서구 염창동 238	(02)3661-6787	100여평의 전시장과 별도의 A/S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도구류를 제외한 모든 제과 기계의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다.
거봉기업	성동구 성수1가 1동 656-260	(02)467-6807	지난해 10월 설립된 중고 기계 전문 업체로 신속한 A/S와 저렴한 판매가격을 장점으로 내세운다.